

최민혁 협박 녹취 파일 속기록

계약후 만20시간이 안된시점의 오전 1차 통화와 문자후 2차 통화. 5분8초.

1심에 제출한 usb의 녹취파일의 속기록입니다.

datargb.github.io 에서 녹취와 속기록을 듣고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최민혁: 여보세요.

정승혜: 여보세요. 최민혁씨 맞으세요?

최민혁: 네.

정승혜: 어- 진짜 맞으세요?

최민혁: 네, 네, 네, 네.

정승혜: 네. 갑자기 (오전에 일찍한 전화통화와) 문자에서 말하시는게 달라지셔가지고 같은분이신가요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재작성)은 안될것 같으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계약서 찢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보증금) 잘 넣어드릴게요.

최민혁: 임차분이 계약 해지하시는것은 배액 그거 반환 아닌가요?

정승혜: 그런데 제가 재계약(재작성)을 원하시는대로 못 해드리겠다는 거니까.

최민혁: 재계약이 아니라 그거 들어가야 할 부분을 들어가야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정승혜: 미리 좀 말씀 해주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저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말씀을 전혀안하시다가.. 갑자기 주차장도 넣어야 한다니.. (이미 그 전에 확답을 해주고 계약서 작성이 만족스럽게 끝나고) 상세한 부분을 (태도가 바뀌어 넣어달라) 말씀하시니까.

이럴려고 뭔가 제가 실수했을때 얘기 안하시고..

(보증금이 관례상 10%인, 금일백만원이라 정승혜가 작성하고 확인 했는데, 어느순간 금삼백만원으로 되어있었다.

나중해보니 정승혜가 그전날인 계약일 오전, 문자로 계약서 작성후
몇번

보내드리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부터 금삼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둘다 재차 관찮은것 같다고 확인을 했다.

출력해서 계약일 오후 만나서 서명을 받기위해 다시 검토하는 중, 정
승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서 다시 써 와야겠네” 하고 말하니,

최민혁이 어차피 일주일후 들어올건데 삼백만원 넣어드리겠다고 하
여 계약이 성립 되었다.

그무렵 정승혜의 영어수업에 사용하는 맥 컴퓨터 두대, 아이패드프로
두대, 삼성지플립 핸드폰에 다양한 해킹이 있어 경찰과 관련업체에
신고와 상담을 했다.)

저도 처음부터 아는 분이 아니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계약서대로..

제가 계약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재계약을 원하시는대로 작성 못해
드리겠고..

최민혁: 왜 그렇게 작성이 안되는 거죠?

정승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갑질하듯이 계약 끝난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쓰라고..

최민혁: 갑질하듯이요?

정승혜: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충분히 갑질이거든요. 미리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 관철을것처럼 하셔가지고..

최민혁: 그거 김인권이 말한 건가요?

정승혜: 저렴하게, 편하게 해서 해드렸는데.. 제가 여자라서 알아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계약 한 다음에 다양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두 좀 신뢰가 안가고,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최민혁: 그거 김인권이 말한 거죠?

정승혜: 네?

최민혁: 김인권이요.

정승혜: 김인권이 누구예요?

최민혁: 그거 저한테 해킹 가지고 스토킹 하는애 있거든요.

정승혜: 김인권이 누구예요?

최민혁: 지금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까 이전에 다른집 볼때도 거기서 나왔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리고 여자라고 얹잡아 본다는거 그거 김인권 이거든요?

정승혜: 김인권이 누구예요?

최민혁: 저한테 개발일 할때 저한테 막막 회사 다니는데마다 막막 해킹으로 거기다니는거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기다기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질 하고 막 제가 그런말도 안했는데 그런말 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제 인격도 아닌데 제 인격이라고 하고 자기인격 이야기 하고 막 그런애 있거든요.

정승혜: 아, 예, 저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말 해준사람 없구요..

최민혁: 그말도 똑같이 시켜요, 개가.

정승혜: 아, 그 그러세요? ㅎ 그렇군요.. 뭐..

최민혁: 개가 성 범죄자예요.

정승혜: 네?

최민혁: 개가 성 범죄자에 무고죄 전과자 라구요.

정승혜: 어-- 그런말까지 막하고 다녔다구요, 그사람이?

최민혁: 그사람이 무고죄 전과자 라구요. 성 범죄 전과자고.

정승혜: 어.. 그러면..

최민혁: 그사람 범죄자예요.

정승혜: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사람이 주위에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누가 개입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최민혁: 아니, 맞는거 같은데요.

정승혜: 아니예요.

경찰서. 그런거는 개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신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셨을때?

최민혁: 괴롭힌다구요?

정승혜: 그 전인권이란 사람이 괴롭히셨을때 경찰에 신고 하셨냐구요?

최민혁: 보니까 그게 개가 뭔가 무서워하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건 정식으로 접수하면 바로 어떻게 될건 같은데..

정승혜: 네, 신고 하세요. 왜 신고 안하시고 저한테 저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모르죠 그런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최민혁: 아니라구요?

정승혜: 제가 경찰서에 지금 가가지고 전인권이란 사란이 중간에 개입한것 같다고,

계약하시는 과정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이 있다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지금 대화내용 녹화 처음부터 되고 있거든요. 들으셨죠?

최민혁: 아니요, 못들었는데요.

정승혜: 아 그랬어요? 어 지금이라더 말씀드릴게요. 녹화 되고 있거든요.

최민혁: 녹화요?

정승혜: 아, 녹화가 아니라 녹음. 녹음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약 초, 갑자기 계약 한 다음에..

최민혁: 혹시 김인권이 옆에서 녹화하고 있나요?

정승혜: 녹음 하고 있어요, 녹음.

- 최민혁: 김인권이 옆에서 녹음하고 있다구요?
- 정승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시한번 김인권 이란사람 언급하시면서 문제 요점을 흐리시면 이부분은 경찰서랑 얘기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 최민혁: 지금 김인권이 옆에서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대로 하라는걸 증거 찍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죠?
- 정승혜: 분명히 김인권이란 사람 개입안한다고 말씀 드렸고
- 최민혁: 그렇게 모른다고 말하라고 협박 받았죠?
- 정승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전화 끊고나서 바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에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거 아니라고.
- 최민혁: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굿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굿이 경찰하고 끼여서 이런일을 하겠다고요?
- 정승혜: 경찰분들이 이런데 도와주시지 언제 도와주세요. 일은 맑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문제를 자꾸 이상한쪽으로 하시는걸 보니까 분명히 계약을 취소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 최민혁: 제가 이상하게 한다구요? 그 김인권이 접근해서 저한테 문제가 있단 식으로 얘기했죠?
- 정승혜: 그런적 없구요.
- 최민혁: 맞죠, 사실이죠. 아유, 맞네요.
- 정승혜: 일단은 전 끊고 경찰서에 이부분 녹화된부분 그대로 전해드리고
- 최민혁: 녹화요?

정승혜: 녹음된부분 그대로 전해드리고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최민혁: ...

정승혜: 그럼 될까요?

최민혁: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요?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하시고?

정승혜: 그건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자, 끊을게요.

* 최민혁은 문자로도 엄마강간살인자 김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수 정승혜에게 전송.